20241013 **감정선으로 읽는 로마서** (2) **"예배자와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 1:8-15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지성**(知性)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정,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지정의를 인간의 정신활동과 인격의 3요소로 말한 것은, 서양철학(西洋哲學)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정신활동을 <지성>과 <의지> 2종으로 구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구의 고대나 중세의 철학적 전통이었습다.

그러나, 18 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정(感情)이, 저질의 지적 활동이 아니라, 별개의 기능이라고 생각, 하고,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에 속하는 슐쩌(J G Sulzer) 그리고 그의 후배인 테텐스(Tetens. Johann Nicolaus 1736~ 1805)가 이를 확고히 정립하여 **지·정·의**를 확립한 것입니다.

*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지성>에 대해 "**눈부시게 찬란한 지성**"이라 표현했습니다.

" 그는 우주가 틀어지지 않게, 미세 조정으로 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구름, 바다, 등등 살아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는 뛰어나며, 굳세며,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설교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감성(感性)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며 초현실적인 측량할 수 없는 감성지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큰 도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감정선으로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선을 읽고 우리의 감정선을 읽으며 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로마서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 좋은 소식을(복음) 주시는 하나님(하나님의 복음),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감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작동한 것은 하나님의 미적인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와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 합니다. <좋다>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는, beautiful, best, better, bountiful, cheerful, at ease, fair word, be in favor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미학적인 감정(美學), 심미감정(深味感情)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바울사도는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감정 중, 최고봉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이성이나 논리로, 의지로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롬1:7절에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감성에 대해서, <사랑을 주시는 분, 사랑을 베푸시

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핵심을, <우리를 성도(聖徒)로 불러주신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성에 대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지만, 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미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의 그 단서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로마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 감성의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여행을 떠난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그 **하나님이란 단어**의 전후의, 형용사나 동사들, 그리고 바울로 대표된 성경저자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신 용어들과 어법에서, 그들의 하나님이해,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단편적인 단서들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 나오는 감사(感謝)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감정의 단편적 모습을 3가지로 살펴보고 자 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바울이 로마교회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위들중 가장 원초적인 것이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곧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만 보자면, 바울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알 길은 없어 보입니다.

레위기 22:29절을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유일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한 구절인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감사를 감지(感知)하고 이해(理解)하고 그들의 감사를 ,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에는 홍수이후의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20-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감사의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생명(生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을 양식주심을 감사하는 식사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감정(感情)도 없는 존재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감성지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롬1:20-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산천(山川)과 피조세계(世界)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물의 근본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데, 만물자체를 찬양하면서 그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방세계에 대해 일갈(一喝)한 것입니다.

* 시편(詩篇)들은 이 감사를, 예배의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50:23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 하였고,

시편 100편 1-4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없인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감사의 감성(感性)을 가지시고, 우리의 적은 감사일지라도, 그것을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2.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에 서신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중국이 잘하는 것 중의 하나 중에, **안면인식기술**(安眠認識技術)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분별해 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통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공포를 자아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기술의 근본 개념은 군중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요. 단지 머릿수의 하나인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0:29-33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1)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섬긴다'는 말의 헬라어 (λατρεύω, latreuó)의 의미는 'serve, service, worship'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마치 예배를 영어로 service, worship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유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자와 하나님의 감정의 교류를 봅니다. 이것은 <신뢰와 책임>의 감정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와 위치에 대해서, 바울은 증언(證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며 고압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편에 옆에서 서 주시는 보혜사(파라클레토스,helper)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2)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배자의 행위를 증언(證言)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증언한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교회에 나아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언하는 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호작용(相互作用)은 우리의 하나님이, 구름 잡는 것과 같은 분이 아니라, 상호교류가 가능하신 인격과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며, 섬기며 예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예배받는 것만 즐기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위기시에, 우리의 편에 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 '마르투스'μάρτυς 법정(法庭)용어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하는 책임있는 증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의 거짓증언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불리(不利)하다면, 올바른 증언을 회피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피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일종의 증언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이 말씀에는 주님의 애정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모든 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장점(長點)과 단점(短點)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증인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에 성취하여주시지 않을 지라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감성에 감사합니다. 이 민감한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적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주목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편에 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합시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신다** (10-15)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바울의 로마교인을 향한 감정을 봅니다.
그것은 열정적(熱情的)이라고 일컫기에 충분합니다.

* 바울이 가진 로마교인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s)를 주고자 했습니다. 2) 그들을 견고케 하기 원합니다.
3)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 진정한 교제입니다. 4) 열매를 맺게 하고자 했습니다.

*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도 일치합니다.

1) 하나님도 우리가 견고(堅固)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의 16:25-27 마지막 3구절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이 마지막부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봅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말에 복음의 한 목표가 제시되어있지않습니까 ?

2) 하나님도 우리와 피차 교제(交際)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특히 12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 그런ㄷ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아무리 열정적(熱情的)인 기도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도바울이 아무이 좋은 뜻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아가기 원하였을지라도 그 기도는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차이점(差異點)과 한계점(限界點)점이 드러납니다.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번 가고자 한 일이 번번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비록 **자기의 뜻**이 여러 번 막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지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안에서만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분명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 스케일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왜,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전하는 것을, 여러 번 막으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서신기록의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순회전도자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순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옥중서신**(獄中書信)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2)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인의 대헌장(大憲章)이요, 조직신학(組織神學)이요, 기독교강요(基督教綱要)입니다. 그가 이 놀랍고 위대한 서신을 쓰게 된 것은, 그가 가고자 한 것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교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 보다 위대(偉大)하다는 것입니다.

* 뜻을 가지시되, 우리의 뜻보다 더 놀랍고 심오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감성을 보면서, 원망(怨望)이나 불평(不平)의 감성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며 그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환란속에서도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기도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앞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본문말씀으로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에 서시고, 우리를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마음은, 감성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움직임의 성향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에게 나아갑시다, 나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시편 50:22-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편이 되셔서 증언해주시고, 가장 좋은 뜻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인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의심없이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